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유 재산 제도에 있어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를 특정한 정치 단체에 기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직계비속, 배우자가 포함되는 상속자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기부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이고, 무상 처분 행위의 당사자인 무상처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때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유류분권은 장남 위주로 상속받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하던 시대였던 '1977년 민법 개정'에 의해 신설되어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불균등하게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법으로 지정된 비율의 곱이다. 민법 제 1112조에 지정된 비율의 값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경우 3분의 1이다. 상속인들이 받았을 수 있는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계산된다.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 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권에 의해 무상 취득된 재산중 일부를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무상취득자는 방지할 수 있다. 피상속자의 재산과 소정의 대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대학에게 100억을 기부했다 가정하자. B대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막기 위해 A씨의 돈 100억과 A씨의 이름을 딴 연구 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었다. 약정을 맺음이 법원에서 인정 된다면 A는 무상처분이 아닌 유상처분을 하였으므로 상속인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다.

유류분권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해보자. A와 B는 2020년 1월 22일,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XX과학고등학교에 각각 30억원, 10억원 가량의 토지를 기부하였다. 학교는 A한테는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으며, B와는 B의 이름을 딴 기숙사 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었고 기부금을 받았다. A와 B는 2023년 1월 22일 죽었고 각각 20억원씩 C와 D에게 상속했다. 상속시점에서 A의 유일한 자녀 C는 2026년 6월 24일 기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6년 11월 25일 유류분을 청구했다. 상속시점에서 B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고, 유일한 직계존속 D가 2025년 11월 7일 기부를 한 사실을 안 즉시 유류분을 청구하였다. 토지의 가격 상승과 세금, 이자등을 무시할때 C,D는 유류분권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까?

4. 유류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77년 상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 ② 항상 무상 처분 행위가 일어났을때만 적용된다
- ③ 피상속자가 사망후 5년이 지났고, 무상 처분 행위가 일어남을 안지 2년이 지났을 때 적용가능하다.
- ④ 무상 취득한 재산에 법정으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 ⑤ 유류분 부족액은 무상 처분 행위가 없을 가정할때 상속자의 이익에 상속받은 금액을 빼서 산정된다.

5.A에 대한 이해에 대해 옳은 것은?

- ① B와 대학간의 약정이 인정되었을 때 B는 유상처분을 하였으므로 D는 유류분을 반환받지 못한다
- ② C가 유류분을 반환받았을 수 있고, C는 총 25억원의 돈을 상속받게 된다.
- ③ B와 대학간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C와 D는 모두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④ B와 대학간의 약정이 인정되었을 때 XX과학고등학교는 5억원을 C에게 반환하게 된다.
- ⑤ B와 대학간의 약정이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A가 반환받는 유류분의 액수는 동일하다.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민법 제 1112조의 2026년 1월 이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2024년 8월 28일, 피상속인의 유언, 공동상속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러법이 통과되었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하러법의 통과에 따라, 2026년 이후의 민법 제1112조의 효력의 상실이 없는 일이 되었다.

(단, B와 대학간의 약정이 입증 되었다)

- ① 2025년 피상속인을 유기한 자녀 E는 상속인이 될수 없다.
- ② C가 A를 학대한 것이 A의 유언에 따라 입증 된다면, C는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유류분권의 행사가 불가해졌다.
- ③ D가 B를 학대했던게 입증된 여부와 관계없이 D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④ C가 A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고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입증되더라도 C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⑤ C와 D의 학대 여부가 동일할때, C는 D보다 항상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

7. 문맥상 의사에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① 의사 선생님의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 ② 안중근 의사의 기념식이 26일 개최되었다.
- ③ 대학 선택에는 나의 의사가 부모님의 의사보다 중요하다
- ④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 ⑤ 이순신과 의사들은 왜적을 무찌르는데 성공했다.